

현대중국어 음역어의 분포 특징과 의미 전이*

김석영**

目 录

1. 들어가며
2. 조사 대상의 범위
3. 음역어의 분포 특징
4. 음역어의 의미 전이
5. 나오며

1. 들어가며

이 논문의 목적은 현대중국어 음역어의 종류와 분포 특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처럼, 실제로 중국어가 음역어보다 의역어를 선호하는 경향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의역어 선호가 사실이라면 현대중국어 상용어(常用詞)로 살아남은 음역어들은 중국어에 적응(adaptation)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 전이(semantic shift)를 겪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어는 단음절 형태소 위주의 조어 형식이나 형태소 문자인

* 이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2014학년도 신입교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임.

본고는 수정 과정에서 익명 심사위원의 지적과 검토 의견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글을 꼼꼼히 읽고 의견을 보내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를 표한다.

** 한국교원대학교 중국어교육과 조교수.

1) 중국어의 차용어 어형 선호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흔히 운위되는 ‘음역어-의역어’의 대립 구도는 사실상 불투명한 형식과 투명한 형식의 대립 구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의역어는 의미 투명도가 높은 조어형식의 대명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자의 특징 등으로 인해 음역어보다는 의역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에 대한 증명은 대체로 이형동의 관계에 있는 음역어와 의역어가 서로 경쟁하다가 최종적으로 의역어가 선택된 예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史有爲 2013:210-212) 이른바 차용어의 ‘漢化’, 즉 현지화 문제를 다룬 대다수의 연구들도 이 문제를 비슷한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으며(李榮嵩 1985, 鍾焜茂 1993, 歐陽友珍 2002 등),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음역어에 사용된 한자들이 본래의 형태소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익히고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Feng 2004). 또 음역어와 의역어의 차이를 언어적 의미 가치의 진실성을 우위에 두느냐 문화적 적응성을 우위에 두느냐의 차이로 설명하기도 한다.(王東風 2002)

그러나 음역어들이 대개 의역어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중국어의 의역어 선호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음역어들이 의역어로 대체되는 경향이 실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음역어들이 도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차용어 범주 내에서 의역어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가 함께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金錫永(2011: 74-81)은 역대의 차용어 17,995 어휘를 수집한 DB에서는 음역어의 비중이 67.14%에 달했으나 56,008 어휘의 빈도 정보를 수록한 《現代漢語常用詞表》(2008)에 살아남은 음역어는 313개로 차용어 전체의 19.05%이며, (구)HSK의 8,822 어휘로 범위를 좁히면 음역어는 전체 차용어의 7.19%에 불과함을 밝힘으로써 일차적인 증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음역어의 비율을 보여주는 수치만이 아니라 음역어 범주를 구성하는 어휘들의 분포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분포적 특성이 중요한 이유는 동일한 100개의 단어라도 분포적 특성에 따라 그 활용도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수량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해당 범주에 속하는 어휘가 범용성을 띠는 것인지 특정 분야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것인지에 따라 수량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최신 어휘빈도 자료인 《現代漢語常用詞表》(2008), 현

대중국어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 사서인 《現代漢語詞典》(第6版, 2012), 그리고 중국 국가표준으로 공표된 교육용 어휘표인 《漢語國際教育用音節漢字詞彙等級劃分》(2010)에 수록된 음역어를 모두 추출하여 ‘현대어’, ‘상용어’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음역어만을 가려낸 다음 해당 어휘가 사용되는 분야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본고의 가설이 맞다면 음역어는 분포상의 편향성을 보여줄 것이다.

다음으로 본고는 이 음역어들이 중국어에 적응(adaptation)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미 전이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역어는 원어(source language)의 의미를 그대로 옮겨오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 축소(reduction), 확대(extention), 전환(transfer), 하락(deterioration), 상승(amelioration) 등의 전이를 겪게 마련이다. 노명희(2013)에 의하면 한국어에 수용된 영어 차용어의 상당수는 이와 같은 의미 영역의 전이나 의미 가치의 전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본고의 가설대로 현대중국어 음역어에서 전문용어(jargon)와 같은 범용성이 낮은 어휘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면 뚜렷한 의미 전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앞서 추출한 음역어 전체를 대상으로 원어와의 비교를 통해 의미 전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여러 가지 의미 전이 유형 가운데 어떠한 전이가 가장 일반적이며, 반대로 어떤 의미 전이 유형이 가장 드물게 나타나는지를 양적으로 고찰한다. 전술한 분포 특징과 함께 이 분석 결과는 현대중국어 음역어들의 특징을 드러내 줄 것이다.

2. 조사 대상의 범위

1) 대상 자료

현대중국어 음역어의 분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음역어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대상 어휘를 추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고는 이를 위해 세 가지 참고자료를 사용하였는데, 각 자료의 특징과 용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現代漢語常用詞表》(2008)(이하 ‘常用詞表(2008)’로 약칭)
최신의 현대중국어 어휘 빈도 자료이다. 상용어를 제시할 목적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절대 빈도값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빈도 순위 정보만 제공한다. 총 56,008 어휘를 수록하고 있으므로 현대중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²⁾
- (2) 《現代漢語詞典》(第6版, 2012)(이하 ‘現代漢語詞典(2012)’로 약칭)
가장 널리 활용되는 현대중국어 표준 사서이다. 제5판에 비해 3,091 개의 신조어가 추가되었으며, 표제자와 표제어를 모두 더해 총 69,450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음역어의 어형은 劉正燾 등(1985), 岑麒祥(1990), 李宇明(2010), 鄒嘉彥·游汝杰(2010), 黃河清(2010)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해당 의미항이 현대중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現代漢語詞典(2012)을 근거로 판단한다.
- (3) 《漢語國際教育用音節漢字詞彙等級劃分》(2010)(이하 ‘詞彙等級劃分(2010)’으로 약칭)
국제 중국어 교육용으로 공표된 음절, 한자, 어휘 등급표이다³⁾. 네 개 등급으로 구분된 11,092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에 사용되는 어휘 목록이므로 常用詞表(2008)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료로 사용한다.⁴⁾ 또 이 자료는 현대중국어 상용어 범위 내의 음역어 가운데 외국어로서

2) 중국어 제목에는 ‘常用詞’라고 되어 있지만, 수록 어휘의 양으로 볼 때, 고빈도어(high frequency words)라기 보다는 통용어(common words)이다. 영문 제목도 *Lexicon of common words in contemporary Chinese*이다.

3) 이 문서는 GF0015-2010이라는 중국 ‘語言文字規範’ 일련번호가 붙은 공식 문서로 공표되었다.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語言文字規範標準管理辦法》 제20조에 의하면 語言文字規範(GF)은 중국 교육부와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가 공표하는 규범 문서이다. 이 문서의 공표일은 2010년 10월 19일, 시행일은 2011년 2월 1일이다.

4)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용 어휘 표준은 일반적으로 신HSK 어휘표가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신HSK 어휘표는 엄밀히 말하면 ‘교육용’이 아니라 ‘평가용’ 어휘표라는 점, 수록량이 5,000 어휘로 常用詞表(2008)를 보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詞彙等級劃分(2010)을 사용하였다. 다만 두 자료의 차이를 고려하여 신HSK 5,000 어휘에 수록된 음역어에 대해서도 검증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常

의 중국어 교육에 사용되는 어휘의 범위, 수량, 특징을 살펴보는 데에도 활용된다.

2) 음역어 추출 절차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현대중국어 음역어 추출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1) 역대 차용어 중의 음역어 추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국어 음역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음역어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대규모의 목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劉正琰 등(1985), 岑麒祥(1990), 李宇明(2010), 鄒嘉彥·游汝杰(2010), 黃河清(2010) 등의 차용어 관련 자료로부터 의역어를 제외⁵⁾ 모든 종류의 차용어를 추출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차용어 목록은 16,663 어휘였다⁶⁾.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대상은 모든 차용어가 아니라 음역어이므로 이 목록에 수록된 어휘에 대해서 차용어 유형을 구분하는 태깅(tagging) 작업

用詞表(2008)와 詞彙等級劃分(2010)의 목록이 충분히 포괄적이어서 신HSK 어휘로부터 보충할 항목은 없었다.

5) 의역어는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현대적인 중국어 차용어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차용어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범주이다. 의미만을 차용한 의역어를 차용어로 볼 수 있느냐도 문제지만, 그것을 차용어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목록 작업에서는 역대의 중국어 어휘를 놓고 신조어와 의역어를 구분해 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된다. 예컨대 ‘亂碼’나 ‘電腦’ 같은 단어를 두고 그것이 새로운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명명인지 ‘mojibake’나 ‘computer’의 번역인지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金錫永 2011: 17-25)

6)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常用詞表(2008)나 詞彙等級劃分(2010)은 알파벳 자모어(字母詞)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알파벳 자모어는 문자를 매개로 한 차용어이므로 본고에서 말하는 음역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목록도 알파벳 자모어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목록 가운데 음역어의 총수는 11,159 어휘였다. 이 자료는 선진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와 중국(PRC),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말레이시아 등의 다양한 지역의 모든 음역어를 포괄하는 자료이므로 이 목록은 현대중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역어를 추출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된다.

(2) 常用詞表(2008) 음역어 추출

常用詞表(2008)는 다양한 현대중국어 코퍼스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어휘 빈도순 목록이다. 이 표에 수록된 56,008 어휘 중에서 음역어만을 가려내기 위해 필자는 이 표와 앞서 정리한 11,159 개 음역어 목록의 중복 항목을 Microsoft Excel의 vlookup 함수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그렇게 해서 추출된 중복 항목은 모두 493개였다.

이 493개의 어휘는 분명히 음역어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현대중국어의 음역어 목록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常用詞表(2008)는 다양한 코퍼스의 자료를 통합한 결과다보니 의미는 물론이고 품사 정보조차도 제공되지 않는다. 동형이의어가 섬세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채 한자 어형과 발음 정보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貓’는 음역어 목록에도 수록되어 있고, 常用詞表(2008)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후자가 {고양이(cat)}의 ‘貓’인지 {모뎀(modem)}의 ‘貓’인지 알 수 없다.

또 앞서 작성한 음역어 목록은 출현 시기가 상이한 어휘들이 한 데 섞여 있기 때문에 한자로 표기된 어형이 같더라도 그것이 현대중국어에서 상용되고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예컨대 ‘仙’이나 ‘先’은 화폐 단위인 ‘센트(cent)’의 음역어이며, ‘血拼’은 ‘쇼핑(shopping)’의 음역어이고, 이들은 두 목록에 공히 수록되어 있지만 이들이 현대의 표준중국어에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3) 現代漢語詞典(2012)에 의한 의미항 검증

常用詞表(2008)에 수록된 어형이 음역어의 그것과 일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것이 현대중국어에서 사용되는 음역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용되는 의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명확한 참조 기준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대중국어의 표준 사서인 現代漢語詞典(2012)이다.

필자는 앞서 추출한 493개의 어휘를 現代漢語詞典(2012)에서 찾은 다음 차용어의 의미항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의 다소 상이한 이유로 목록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단어들 발견되었는데, 그 첫 번째는 常用詞表(2008)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現代漢語詞典(2012)에는 아예 해당 표제어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이는 두 자료의 상이한 성격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現代漢語詞典(2012)은 여섯 차례의 수정 가운데 초기의 두세 차례 수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통용어(7) 사전으로서의 면모를 분명하게 갖추었다. 따라서 인명이나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어휘들은 수록되지 않았다.

(1) 고유명사

阿富汗(아프가니스탄), 埃及(이집트), 愛爾蘭(아일랜드), 澳大利亞(오스트레일리아), 巴比倫(바빌론), 巴基斯坦(파키스탄), 巴黎(파리), 柏林(베를린), 不丹(부탄), 俄羅斯(러시아), 菲律賓(필리핀), 荷蘭(네덜란드), 呼和浩特(후호트), 華盛頓(워싱턴), 惠靈頓(웰링턴), 吉隆坡(쿠알라룸푸르), 加德滿都(카드만두), 加拿大(캐나다), 柬埔寨(캄보디아), 喀布爾(카불), 老撾(라오스), 倫敦(런던), 羅馬(로마), 馬來西亞(말레이시아), 馬尼拉(마닐라), 曼穀(방콕), 蒙古(몽골), 孟加拉(방글라데시), 緬甸(미얀마), 莫斯科(모스크바), 尼泊爾(네팔), 烏蘭巴托(울란바토르), 烏魯木齊(우룸치), 希臘(그리스), 香檳(상파뉴), 新加坡(싱가포르), 雅加達(자카르타), 仰光(양곤), 意大利(이탈리아), 印度(인도),

7) 《辭海》를 출판하는 중국의 사서 전문 출판사인 上海辭書出版社에서는 이를 ‘百科條目’과 구분하여 ‘語詞條目’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통용어휘와 비슷한 개념인 ‘語詞條目’에는 낱글자, 일반어휘, 성어, 속어 등이 해당되며, ‘百科條目’에는 인명, 지명, 작품명, 정책·조직·이론의 명칭 등이 해당된다.(辭海編纂處 2005 참조)

印度尼西亞(인도네시아)

客里空(구 소련 작가 코르네츠크의 작품 《前線(전선)》에 나오는, 사실을 날조하고 근거 없이 제멋대로 보도하는 기자의 이름), 釋迦牟尼(석가모니)

(2) 전문용어 및 기타

班禪(판첸), 凡爾丁(바레틴[직물 종류]), 叻(phon[공명도 단위]), 六六六(666[유기화합물의 일종]), 霓虹(네온), 硼砂(붕사[borax]), 日落(즈록[식물명]), 先令(실링)

阿媽(아버지[여진어]), 阿司匹林(아스피린), 迪吧(디스코텍), 多多(토토[복권])

다음은 동형어가 수록되어 있지만, 차용어 의미향은 수록되지 않은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어휘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고유명사

安泰(안타이오스), 安息(아르사케스), 保安(민족명), 怒(민족명), 萬象(비엔티앙) 등

(2) 지금은 잘 쓰지 않는 구어휘

補丁(푸딩), 大(다스[dozen]), 大臣(다스[dozen]), 伐(valve), 墩(툰[ton]), 乏(var[전기량 단위]), 骨(쿼터[15분]), 刮(쿼터[15분]), 領(ream), 飛(fitting), 耳朵(알토), 回聲(기적[whistle]) 등

(3)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어휘

波(볼(ball)), 鉢(부츠[boot]), 財路(지로[giro])⁸⁾, 赤(수표[check]), 當(다운[down]), 基(게이[gay]), 按(모기지론[mortgage]) 등

이상과 같은 어휘들을 제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263개의 음역어가 추출되었다.

8) 차용어 분류 체계에 따라서는 ‘財路(지로[giro])’와 같은 유형을 이른바 ‘音意兼譯’ 또는 ‘音譯兼顧’라는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이 표기 단계에서 문자 선택의 문제일 뿐, 기본적으로는 음역의 한 유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金錫永 2011: 59-61) 본고에서는 음역어에 포함하여 다룬다.

(4) 詞彙等級劃分(2010)에 의한 어휘 보충

마지막으로 교육용 어휘표인 詞彙等級劃分(2010)에 수록된 11,092 어휘 가운데 앞서 추출한 263개의 음역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음역어가 더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詞彙等級劃分(2010)은 앞서 사용한 자료들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목록임에도 여기 수록된 어휘 가운데 다음의 한 항목은 263개의 음역어 목록에 빠져 있었다.

芝士(치즈[cheese])

‘芝士’는 교육용 어휘표에 수록된 단어인 만큼 사용 빈도나 활용도의 측면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의 범위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판단하여 음역어 목록에 포함하였다. 이로써 분포 특징과 의미 전이 양상의 분석을 위한 현대중국어 음역어 목록은 264개가 최종적으로 추출되었다.

3. 음역어의 분포 특징

1) 비(非)범용 어휘

264개의 음역어를 해당 어휘가 주로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 분류해 보면 현대중국어의 음역어들이 주로 어떤 분야에 많이 분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64개의 음역어 각각에 대하여 의미와 관련된 상위 범주 정보를 태깅하고, 그 가운데 자주 출현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휘들을 귀납한 결과 특정 분야 및 그와 관련된 주변 분야에 다수의 어휘가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어휘가 화학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

직물 관련 어휘도 다수 발견되었는데, 직물의 대부분이 합성 섬유이므로 이 또한 화학과 관련된 것으로 보면 여기에 속하는 어휘는 모두 51개로 전체 음역어의 19.32%에 달한다.

(1) 화학 관련 (43개)

氮(암모니아), 鋇(바륨), 滴滴涕(D.D.T.), 敵敵畏(DDVP), 碘(요오드), 酊(팅크제), 氦(라돈), 凡士林(바셀린), 氟(불소), 氟利昂(프레온), 福爾馬林(포르말린), 鈣(칼슘), 氬(헬륨), 鉀(칼륨), 錳(망간), 咖啡因(카페인), 奎寧(퀴닌), 鐳(라듐), 鋁(알루미늄), 氯(염소), 嗎啡(모르핀), 鎂(마그네슘), 錳(망간), 鈉(나트륨), 氖(네온), 鎳(니켈), 硼(붕소), 鈦(티타늄), 銻(안티몬), 鎢(텅스텐), 硒(셀레늄), 鋅(아연), 氫(아르곤), 鈹(이리듐), 瓊瑤(범랑), 海洛因(헤로인), 可卡因(코카인), 尼古丁(니코틴), 尼龍(나일론), 賽璐珞(셀룰로이드), 蘇打(소다), 梯恩梯(TNT), 鈾(우라늄)

(2) 직물 관련 (8개)

的確良(데이크론), 滌綸(테릴렌), 法蘭絨(플란넬), 卡其(카키복 천), 開司米(캐시미어), 派力司(팔라스[palace]), 維尼綸(비닐론), 嗶嘰(베이지)

다음으로 많은 수의 어휘가 분포한 분야는 종교 관련 분야였다. 특정 종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나 명칭, 그리고 특정 종교 관련 고유명사 등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속하는 어휘의 총수는 36개로 전체 음역어의 13.64%를 차지했다.

(3) 종교 관련 (36개)

阿訶(아훈드, 이맘), 阿門(아멘), 比丘(비구), 比丘尼(비구니), 鉢(바리떼), 刹(사찰), 刹那(찰나), 禪(선), 阿彌陀佛(아미타불), 佛(부처, 불타), 佛陀(부처, 불타), 浮屠(부처, 불탑), 和尚(중, 승려), 偈(가타, 게), 袈裟(가사), 劫(겁, 무한히 긴 시간), 喇嘛(라마[Lama]), 羅漢(나한), 彌勒(미륵), 彌撒(미사), 彌陀(아미타불), 穆斯林(무슬림), 涅槃(열반), 菩薩(보살), 菩提(보리, 정각), 撒旦(사탄), 僧(승려), 沙門(승려, 사문), 沙彌(사미, 사미승), 舍利(사리), 夏娃(하와), 亞當(아담), 耶和華(여호와), 耶穌(예수), 夜叉(야차), 猶大(유다)

민족이나 민속과 관련된 어휘도 11.36%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민족의 명

칭, 특정 민족의 민속·제도 관련 어휘, 음악 관련 어휘 등이 포함된다. 종교 관련 어휘와 마찬가지로 이들 어휘도 특정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특정한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기보다는 음역어로 유입되고 계속 음역어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 (4) 민족명 (13개)
 韃靼(타타르족), 回紇(회홀, 위구르족), 京(징족), 黎(리족), 苗(먀오족), 女真(여진족), 契丹(거란족), 突厥(ตุ르크족), 土(토족), 鮮卑(선비족), 匈奴(흉노족), 藏(티베트족), 壯(좡족)
- (5) 민속·제도 관련 (11개)
 敖包(어위, 오부가, 아오바오), 法老(파라오), 哈達(하다[hada]), 可汗(칸[khan]), 那達慕(나담 페어, 나다무), 饅頭(낭[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이 즐겨 먹는 구운 빵]), 氍毹(방로), 紗籠(사롱[sarong][미얀마·인도네시아·말레이 반도 등지의 민속 의상]), 糴糶(참과), 汗(칸[khan]), 宗(옛날 티베트 지역의 현에 상당하는 행정 구획 단위)
- (6) 음악 관련 (6개)
 冬不拉(돔브라), 吉他(기타[guitar]), 琵琶(비파[현악기]), 嗩吶(수르나이), 華爾茲(왈츠), 探戈(탱고)

번역되기 어려운 것으로는 또 각종 단위들이 있다. 도량형 단위나 화폐 단위도 대개 음역어로 존재한다. 여기에 속하는 어휘는 총 25개로 9.47%를 차지하고 있다.

- (7) 도량형 단위 (22개)
 埃(옹스트롬), 安(암페어), 安培(암페어), 盎司(온스), 磅(파운드), 打(다스), 噸(톤), 伏(볼트), 加侖(갤런), 開(캐럿), 克(그램), 庫(쿨롬[coulomb]), 畝(연[連][종이 단위]), 羅(그로스[gross][12다스]), 邁(마일), 米(미터), 納米(나노미터), 歐姆(옴[ohm]), 宋(son[공명도 단위]), 托(토르[tor, torr][압력 단위]), 瓦(와트), 瓦特(와트)
- (8) 화폐 단위 (3개)
 鎊(파운드), 盾(둥[화폐 단위]), 法郎(프랑)

동식물의 명칭도 상대적으로 음역어가 많은 분야이다. 특히 동물보다는 식물 명칭에 음역어가 많았다. 여기에 속하는 어휘는 총 18개로 6.82%를 차지하고 있다.

- (9) 동물명 (4개)
八哥(구관조), 鸛鶴(에뮤), 駱駝(낙타), 猩猩(오랑우탄)
- (10) 식물명 (14개)
檳榔(빈랑), 仙客來(시클라멘), 康乃馨(카네이션), 可可(코코아), 榴蓮(두리언), 蘆薈(알로에), 蘑菇(버섯), 茉莉(제스민), 木瓜(파파야, 모과), 苜蓿(목축, 거여목), 檸檬(레몬), 蘿卜(무), 葡萄(포도), 西瓜(수박)

이 밖에도 정치 관련 어휘, 의료·생명공학 관련 어휘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11개로 전체 음역어의 4.17%이다.

- (11) 정치 관련 (5개)
布爾什維克(볼셰비키), 蓋世太保(게슈타포), 蘇維埃(소비에트), 法西斯(파쇼), 納粹(나치)
- (12) 의료·생명공학 관련 (6개)
繃帶(붕대), 基因(유전자), 克隆(클론, 복제하다), 淋巴(임파, 림프), 歇斯底里(히스테리), 休克(쇼크[의학적 증상])

현대중국어에서 통용되는 어휘로 생존해 있는 음역어들은 목록을 살펴보면 직관적으로 특정 분야에의 편중성 혹은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전술한 분류 작업은 이를 좀 더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분야를 구분해 낸 어휘의 비중은 총 64.77%이다. 일반적으로 상용어 범주 내에서 이와 같은 전문 분야의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상회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음역어의 이러한 편중은 다른 어휘 범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범용 어휘 내에서 음역어가 생존을 유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2) 상용도

음역어의 비일상어적 특성은 현대중국어에 생존해 있는 음역어의 상용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 빈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常用詞表(2008)는 절대빈도값을 제공하지 않고 빈도 순위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빈도 순위 정보만으로 대략적인 상용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음역어 범주의 상용도가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 대개의 경우 음역어의 대조군으로 여겨졌던 어휘 범주는 의역어이다. 하지만 각주 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역어라는 범주가 과연 어휘 차용의 유형에 속하는 것인가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본 연구와 같이 어휘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연구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의역어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난망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의역어는 예시의 방식으로만 제시되어 왔을 뿐 의역어 총목록을 생산하는 작업은 기존의 연구에서 일찍이 시도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의역어가 음역어의 대조군으로 취급되는 본질적인 이유로 돌아가 보는 방법 밖에 없다. 기실 음역어-의역어의 대립은 불투명한 형식과 투명한 형식의 대비이다. 중국어의 일반적인 조어 형식은 대부분 의미의 투명도가 높다. 중국어의 특징으로 운위되는 ‘단음절성’은 현대중국어에서 ‘단음절 형태소’로 구현되며, 이른바 ‘字本位’의 접근법 역시 중국어의 이런 특징에 천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음역어-의역어의 대립이란 결국 중국어적이지 않은 불투명한 형식과 중국어적인 투명한 형식의 대립을 차용어 혹은 차용어로 간주하고 싶은 어휘 범주 내에서 찾아낸 것이다.

음역어-의역어 대립의 본질이 이와 같으므로 목록을 사용할 수 없는 의역어 대신 목록 사용이 가능한 어휘 범주 중에서 이와 같은 대립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찾는다면 이른바 ‘일본산 한자어’⁹⁾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불

9) 여기에서 ‘일본산 한자어’는 한자 형태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어휘, 즉 중국어적인 조어구조를 가진 한자어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따라서 ‘淋巴’, ‘俱樂部’와 같

투명-투명 대립의 층위만 고려한다면 의역어나 일본산 한자어 외에도 중국어의 고유 어형 대부분이 '투명' 쪽에 해당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차용 여부'라는 또 하나의 변인이 존재하므로 이 변인을 통제해야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의역어까지 차용어의 범위에 포함시킨 다음¹⁰⁾ 여기에서 논의된 범주의 속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차용 | 비차용 |
|-----|--------------|---------|
| 투명 | 의역어, 일본산 한자어 | 대다수 고유어 |
| 불투명 | 음역어 | 의성어 등 |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차용 여부와 투명도라는 두 개의 조건을 적용했을 때 의역어 범주와 가장 유사한 속성을 갖는 것은 일본산 한자어이다. 이런 까닭으로 중국에서는 일본산 한자어를 차용어로 간주하지 않는 주장도 나온다. 王力(1958/1980: 528-535)는 일본산 한자어가 서양의 개념을 의역한 것이므로 외래어라 할 수 없고, 자신들은 '두 번 수고할 것 없이'(省得另起爐灶) 일본에서 이미 만들어진 번역어를 그대로 쓴 것뿐이라는 논리를 폈다. 北京大學(1993: 244)에서는 “音譯詞”가 적용 과정에서 “意譯詞”로 대체된 예를 몇 가지 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예로 든 “德謨克拉西、狄克推多、德律風” → “民主、獨裁、電話”가 모두 사실은 일본산 한자어이다.

이러한 사실과 전술한 일본산 한자어의 속성으로 볼 때 이른바 '음역어-의역어' 대립에서 '의역어'를 대신할 어휘 범주로 일본산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음역어와 일본산 한자어의 상용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면, 음역어와 의역어의 차이도 그에 못지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 '일본산'이고 '한자 표기'를 하고 있지만 조어 구조로 볼 때 음역어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일본산 한자어'에 포함하지 않는다.

10) 필자는 의역어를 차용어로 보지 않지만 음역어가 의역어와 대비되는 이유는 논자들이 양자가 모두 차용어라는 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여기에서는 논의 전개 편의상 의역어도 [+차용]으로 처리한다.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산 한자어를 비교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선 常用詞表(2008)로부터 일본산 한자어를 추출해야 하는데, 앞서 구축한 16,663 어휘의 역대 차용어 목록을 사용하여 常用詞表(2008)에 수록된 56,008 어휘 중의 일본산 한자어를 구분한 결과 모두 1,055개가 추출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추출한 음역어가 493개였으므로 우선 상용어 내에 존재하는 두 범주의 규모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55개 한자어에도 現代漢語詞典(2012)에 수록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를 배제한 최종 수치는 1,005개이다. 음역어는 같은 방법으로 추출한 목록이 264개였으므로 ‘상용어’와 ‘현대어’의 조건을 모두 적용하면 두 범주의 양적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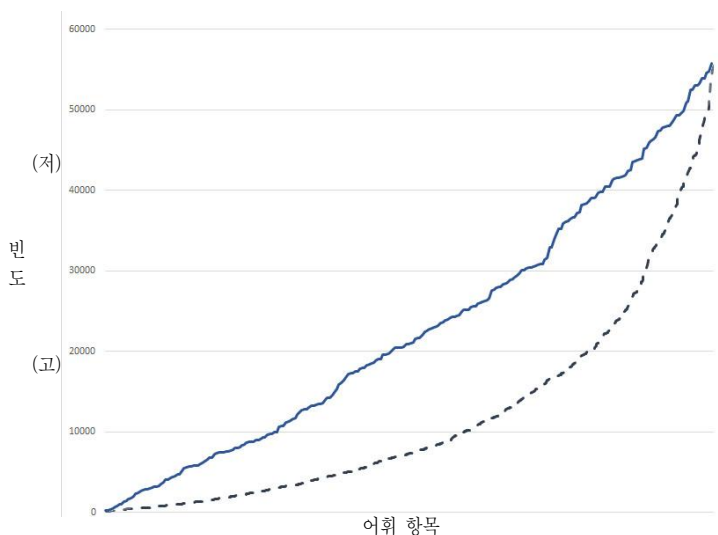
현대중국어 상용어휘에 포함되는 두 범주의 어휘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 외에 더 직접적으로 두 범주의 상용도를 비교하는 방법은 常用詞表(2008)의 빈도 순위값¹¹⁾을 평균과 분포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은 두 범주의 빈도 순위값 평균이다.

[표 1] 빈도순위 평균치 비교

| | 음역어 | 일본산 한자어 |
|---------|---------|---------|
| 빈도순위 평균 | 22938.9 | 11974.2 |

우선 빈도순위의 평균치만을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역어의 상용도가 일본산 한자어에 비해 크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용빈도 차이는 두 범주의 어휘들이 고빈도어 쪽에 더 많이 분포하는지 저빈도어 쪽에 더 많이 분포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순위값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11) 常用詞表(2008)는 절대빈도값은 제공하지 않고 빈도 순위만 제공한다. 빈도 순위값은 순위 간의 거리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대략적인 빈도를 파악하는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여기에서는 빈도순위값으로 두 범주의 사용 빈도를 비교한다.



[그림 1] 빈도순 분포 비교

— 음역어 - - - - - 일본산 한자어
 * 빈도 순위값이므로 숫자가 작을수록 고빈도임.

일본산 한자어의 분포가 음역어에 비해 뚜렷하게 고빈도어 쪽으로 쏠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평균치가 보여주는 것처럼 일본산 한자어의 상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은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용으로 11,092 단어만을 엄선한 詞彙等級劃分(2010)에 포함된 두 범주의 어휘수를 살펴보는 것으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2] 詞彙等級劃分(2010)에 포함된 어휘수 비교

| | 음역어 | 일본산 한자어 |
|-----|--------------------|---------|
| 어휘수 | 531 ¹²⁾ | 590 |

12) 詞彩等級劃分(2010)은 한자어형과 품사 정보만을 제공할 뿐 의미 정보는 목록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음역어는 동일한 형식을 가진 비음역어(혹은 비차용어)

[표 2]에 잘 드러난 것처럼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용 어휘표에 수록된 일본산 한자어와 음역어의 수는 열 배가 넘는 차이를 보인다. 그만큼 음역어의 상용도와 활용도가 낮다는 의미이다.

4. 음역어의 의미 전이

앞서 고찰한 대로 현대중국어의 음역어가 대체로 범용성이 낮고 특정 분야의 전용어휘로의 편중이 큰 편이므로 크게 의미 전이를 일으키지 않고 사실상 원어의 개념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氟利昂’과 ‘freon’은 모두 프레온 가스를 가리키며, ‘喀斯特’와 ‘karst’는 모두 카르스트 지형을 가리킬 뿐 개념의미나 지칭대상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미 3.1의 분류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화학원소·유기화합물·직물·민족·악기·식물 등의 명칭으로 쓰이는 말들, 도량형이나 화폐의 단위, 종교 용어 등이 음역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이 차용의 과정에서 의미의 축소나 확대와 같은 변화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런 말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현대중국어 음역어에도 의미 전이가 일어난 예들이 물론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의미의 확대, 축소, 전환, 상승, 하락의 예를 살펴보겠다.

1) 의미 확대(semantic extention)

의미 확대의 유형에는 의미항 자체가 늘어나는 경우, 지칭 대상이 더 일반

와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53 어휘 중 粉絲(팬; 당면), 汗(칸; 땀), 貓(모템; 고양이), 派(파이; 분파), 曬(공유하다; 햇볕을 쬐다), 胎(타이어; 태아, 모태)는 음역어로 쓰일 때와 비음역어로 쓰일 때의 의미빈도가 크게 다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제외하면 수록 음역어수는 48개이다.

화되는 경우, 문법적 의미(기능)가 늘어나는 경우 등이 있다.

의미항이 늘어난 경우로는 ‘站’을 들 수 있다. 몽골어 ‘jam’은 역참(驛站)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중국어 ‘站’은 ‘北京站’과 같이 역을 가리키는 것은 물론이고, ‘公交通車站’에서는 정류장을 가리키며, ‘發電站’ 같은 말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장소나 시설을 가리키기도 한다.

‘沙發’는 지칭 대상이 더 일반화된 경우이다. 영어의 ‘sofa’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길고 폭신한 의자’인데, ‘沙發’는 ‘폭신한 쿠션을 가진 의자’로 지칭 범위가 더 일반화되었다. 그 결과 등받이나 팔걸이가 전혀 없는 의자(stool)이더라도 폭신한 쿠션을 갖추고 있으면 ‘沙發凳’이라고 부른다. ‘喇叭’도 비슷한 경우이다. 몽골어 ‘labai’는 나팔만을 가리키지만 중국어 ‘喇叭’는 ‘소리를 내는 나팔 모양의 물건’으로 일반화되어 자동차의 클랙슨을 ‘汽車喇叭’라고 하고 손으로 들고 사용하는 확성기를 ‘手提喇叭’라고 한다.

또 ‘歇斯底里’는 본래 명사 ‘hysteria’의 번역어로 히스테리라는 증상을 가리키는 명사인데, 중국어에서는 ‘女性形象又變成被誘惑的、扭曲的、歇斯底里的’와 같은 문장에서처럼 ‘히스테리컬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로도 쓰인다. 의미항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품사도 확대된 것이다. ‘幽默’도 마찬가지이다. 본래 ‘humour’의 번역어로 명사이지만, 중국어에서는 ‘是生活幽默我一次’에서처럼 동사로도 쓰인다.

2) 의미 축소(semantic reduction)

의미의 축소는 차용의 과정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원어가 다의어인 경우 대개 차용 과정에서는 여러 의미항 가운데 일부만을 목표로 가져오기 때문이다.

원어의 여러 의미항 가운데 일부만을 취한 예로는 ‘模特兒’, ‘坦克’, ‘休克’ 등을 들 수 있다. 영어 ‘model’은 ‘패션 모델’이나 ‘사진·그림의 대상이 되는 모델’ 뿐만 아니라 ‘모범’, ‘모형’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중국어 ‘模

特兒'은 패션 모델이나 사진·그림 등의 모델만을 가리킨다. '坦克'도 마찬가지다. 영어 'tank'는 '군용 전차'의 의미와 함께 '액체나 기체를 담은 통'이나 거기에 담긴 '내용물'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중국어 '坦克'에는 '군용 전차'의 의미만 있다. 또 영어 'shock'는 '놀람, 충격', '진동' 등의 의미로 일상에서도 사용되지만 중국어 '休克'는 의학적인 쇼크 상태, 즉 진탕증(震盪症)의 의미로 쓰인다.

지칭 범위가 축소되거나 특수화된 경우도 있다. '胡同'이 대표적인 예인데, 몽골어 gudam은 본래 '길'을 가리키는 말인데, 중국어 '胡同'은 넓은 길을 지칭하는 데는 쓰이지 않고 좁은 골목을 주로 가리킨다. 그리고 골목 중에서도 주로 베이징의 골목을 가리키며, 다른 지역에서는 베이징처럼 흔히 사용되지 않는다. 즉 지칭 범위만이 아니라 사용 범위도 축소된 것이다.

3) 의미 전환(semantic transfer)

의미의 전환은 대개 환유, 제유, 은유 등을 통해서 일어난다. 의미 전환에 해당되는 오래된 예로는 '木乃伊'가 있다. 어원인 아랍어 'mūmiyā'는 미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역청'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것이 중국어에 차용되어 미라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또 영어 'poker'는 트럼프를 사용하는 게임의 종류인데, 그것을 차용한 중국어 '扑克'는 포커 게임에 사용하는 카드, 즉 트럼프를 가리킨다. 고유명사가 일반명사로 바뀐 것도 있다. 'Simmons'는 침대 회사의 이름이지만, 그것을 차용한 중국어 '席夢思'는 스프링 침대의 매트리스를 가리킨다.

4) 의미 상승(semantic amelioration)

의미 상승은 어떤 말이 가지는 문체적 의미나 정서적 의미가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현대중국어 음역어에서 의미 상승의 예는 많지 않

다. ‘cheese’를 음역한 ‘芝士’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의역어인 ‘乾酪’나 ‘奶酪’와 큰 차이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또 ‘angel’의 음역어인 ‘安琪兒’은 일상의 구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이다. 이 말은 일상의 구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역어 ‘天使’에 비해 문학적이고 문어적인 느낌을 주며, 실제로 그런 느낌의 문어체에서 곧잘 사용된다.¹³⁾

5) 의미 하락(semantic deterioration)

의미 하락은 상승과 반대로 문체적 의미나 정서적 의미가 부정적인 쪽으로 변한 것을 말한다. 현대중국어 음역어 중에서는 ‘曬’, ‘秀’, ‘浪漫’ 등이 그러한 예이다. ‘曬’는 영어 ‘share’의 음역어이다. 중국어 ‘曬’는 ‘share’에 비해 사용 범위도 크게 축소되어 인터넷 상에 글이나 사진 등을 올리는 것만을 주로 가리키는데, 이와 같은 의미 축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중국어 ‘曬’에는 다소간 ‘과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 하락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秀’도 의미 하락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어 ‘秀’에는 영어 ‘show’와 달리 ‘所謂征詢民意, 只不過是作秀’처럼 표면적인 보여주기식의 행위를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해졌다. ‘浪漫’은 ‘romantic’과 달리 중국어에서 (주로 남녀 관계에서) 방탕하고 제멋대로’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5. 나오며

이상으로 현대중국어 음역어의 분포 특징과 의미 전이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중국어 차용어 자료들로부터 추출한 16,663개의 차용어 목록을 바탕으로 常用詞表(2008), 現代漢語詞典(2012), 詞彙等級劃分

13) 의미 상승과 의미 하락에 대한 판단의 과정에서 한국교원대학교 공범련(孔凡蓮)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이에 감사를 표한다.

(2010) 세 자료를 사용하여 ‘상용어’와 ‘현대어’의 조건에 부합하는 264개의 음역어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음역어 분포의 특징과 의미 전이 양상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알려진 것과 같이 현대중국어는 음역어보다 의역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했다. 분포에 있어서 대다수의 음역어는 민족명과 같은 고유명사, 도량형이나 화폐 단위, 동식물의 명칭, 화학 관련 명사, 종교 관련 어휘 등의 특수한 분야에 치우쳐 있었고, 상용어 범위에 포함되는 어휘의 양이나 사용 빈도 순위 평균치와 빈도 순위 상의 분포로 볼 때 음역어는 상용도도 다른 어휘 범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이는 음역어가 일상어에서는 대부분 도태되고 특수한 분야에서만 생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들 음역어는 중국어로 차용되는 과정에서 큰 의미 전이를 겪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일부의 음역어에서는 의미의 축소(reduction), 확대(extention), 전환(transfer), 하락(deterioration), 상승(amelioration)과 같은 의미 전이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음역어의 분포 특징과 의미 전이 양상에 대한 연구가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를 아우르는 중국어권의 글로벌 중국어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된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보다 많은 조사와 분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므로 차후의 과제로 다루기로 하겠다.

參考文獻

노명희(2013), 외래어의 의미전이, 대동문화연구, 82: 493-524.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現代漢語教研室(1993/2004), 《現代漢語(重排本)》, 北京: 商務印書館.

岑麒祥(1990), 漢語外來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辭海編纂處(2005), 辭海編纂手冊, 上海: 上海辭書出版社.(출판사 내부 자료)

《漢語國際教育用音節漢字詞彙等級劃分》課題組(2010), 漢語國際教育用音節漢字詞彙等級劃分,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黃河清(2010), 近現代辭源,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金錫永(2011), 現代漢語外來詞的社會語言學研究,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李榮嵩(1985), 談外來詞的漢化, 天津師大學報, 2: 94-97.

李宇明(2010), 全球華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劉正琰、高名凱、麥永乾、史有爲(1985), 漢語外來詞詞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歐陽友珍(2002), 現代漢語外來詞漢化軌跡及規律初探, 南昌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3: 127-131.

史有爲(2013), 漢語外來詞, 北京: 商務印書館.

王東風(2002), 文化認同機制假說與外來概念引進, 中國翻譯, 23(4): 8-12.

王力(1958/1988), 《漢語史稿》[王力文集(第9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現代漢語常用詞表》課題組(2008), 現代漢語常用詞表, 北京: 商務印書館.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2012), 現代漢語詞典(第6版), 北京: 商務印書館.

鍾焜茂(1993), 現代漢語對外來詞的接受與漢化, 龍岩師專學報, 2: 85-94.

鄒嘉彥、游汝杰(2010), 全球華語新詞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Feng, Zhiwei(2004), The Semantic Loanwords and Phonemic Loanwords in

Chinese Language, in *Aspects of Foreign Words/Loanwords in the Word's language(The Multi-Faceted Nature of Language Policies that Aim to Standardize and Revive Language)*, Proceedings for 11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NIJLA, Tokyo: 200-229.

Abstract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and Semantic Shifts of Phonemic Loanwords
in Modern Chinese

Kim, Sok-yong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known (widely accepted) tendency that the modern Chinese language prefers semantic loanwords to phonemic loanwords, by looking into the types and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phonemic loanwords. It also attempts to study the loadwords that are still alive among the most commonly used words, focusing on the semantic shifts that they underwent in the process of becoming part of Chinese.

To this end, this paper sampled 264 phonemic loanwords from the *Lexicon of common words in contemporary Chinese* (2008) and investigated the distributional features and semantic shifts of them, with the focus on their meanings and the fields they were used i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majority of the loadwords were those used in specific areas, such as proper nouns (e.g., names of ethnic groups), units of measurement and currency, names of animals and plants, chemistry-related nouns, and religion-related vocabulary. Also, it was observed that most of these words did not go through significant semantic shifts in the process of getting adapted to the Chinese language. Apart from these words, semantic alteration was discovered in some loanwords, such as reduction, extention, transfer, deterioration, and amelioration.

Key words : modern Chinese, semantic loanwords, phonemic loanwords,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semantic shifts

투 고 일 : 2016. 9. 10. / 심 사 일 : 2016. 9. 15. ~ 2016. 10. 15. / 게재확정일 : 2016. 10. 16.